

국토부 지정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 해제

동구 내남동·광산구 용곡동 등 23.82km² 해당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광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광주 23.82km² 등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km²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km²의 59.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km²)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시·도별은 경기도(98.685km²), 인천시(92.74km²), 부산시(46.642km²)의 해제 폭이 컸다. 특히 광주시(23.82km²), 대구시(3.59km²), 울산시(1.2km²), 경남도(7.39km²)는 이번 조치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광주에서 해제된 곳은 지난 2001년 11월 국토부가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동구 내남동, 선교동, 월남동 일원 473필지를 비롯한 광산구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도덕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신동, 삼도동, 하산동, 북룡동, 요기동, 옥동, 월전동, 연산동 등 광동 동백훈련장 및 인접부지 1만6577필지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주시가 지정한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일원 5.22km²만 남게 됐다. 이는 시 전체 면적 501km² 대비 1.04%에 불과한 면적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 포송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로지구가 이번에 해제됐다.

지자체 개발 사업지 중에서는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업, 경기 의왕 백운 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6일 공고되는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자치구 민원봉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박형규 토지관리 담당은 “해당 토지를 소유했던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사라지고, 토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은, 후보 선거비 관리 ‘당선거원통장’ 출시

광주은행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고, 선거비용 관리시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인 ‘당선거원통장’을 출시해 5일 판매에 들어갔다.

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최동철 부장은 “광주은행 당선거원통장은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금융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며 입후보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의무휴업일 준수하라”

정부, 대형마트에 재촉

정부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대형마트가 유통법상 영업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마트의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인데도 영업을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대형마트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태 홈플러스 상무는 “대·중소 유통업체 양측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금의 조성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통반 성장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연구기금을 출연하고 대·중소 유통업체가 참여한 유통산업연합회 주도로 전문가들과 연구를 추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 모델을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협력 방안의 연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촌 발전방향’ 특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배평앞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를 초청해 ‘어촌 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은행 ‘찍기’ 과태료 내달부터 대폭 오른다

은행서 금이 어 은도 판매 대행 가능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찍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판매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

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찍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찍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찍기도 금지된다.

특히, 찍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찍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찍기 1건당 기준액이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찍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찍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

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경영에 따른 적립계좌 매매는 경영에 따른 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만 허용됐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증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경영 업무 범위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 보급종 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올해 봄에 파종할 공 정부 보급종을 3월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 품종은 일반공(태광공) 140t과 나물공(풍산나물공) 102t이다.

공급 가격은 5kg들이 포대당 2만 5090원이며(소곡품, 미소곡품 동일) 종자공급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

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한다.

공 정부 보급종은 순수 국산종으로 정밀한 종자검사를 거쳐 합격한 종자만을 공급하므로 발아율이 높고 품질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는 종자다.

종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이나 공 종자 품질별 특성 등에 대한 문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2)에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이트진로, 순천사랑기금 234만원 전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순천 사랑기금 5000만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3차 조성금 234만8640원(누적금액 655만8180원)을 5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조충훈 순천시장(사진 왼쪽), 오문택 하이트진로(주) 순천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 순천지점은 ‘정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3년 4월부터 순천 지역에서 판매되는 d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모아 조성 목표액 5000만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d맥주와 참이슬’ 판매로 적립된 기금조성된 금액은 순천시청에 기탁돼 순천지역 불우한 이웃에 사용된다. 하이트진로(주) 오문택 지점장은 2014년에도 “정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환원사업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주) 전남권역(본부장 정재덕)은 광주·전남 4개지점에서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